

# 비전공 교사에 의한 지리 수업 운영에 대한 사례 연구

## The case study of geography classes taught by non-majored teacher in the middle school

박선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회과연구실, [kicegg@kice.re.kr](mailto:kicegg@kice.re.kr))

본 연구에서는 전공 교사와 비전공 교사에 의한 지리 수업의 차이점과 비전공 교사에 의한 지리 수업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2003년 4월과 5월에 서울의 3개 중학교에서 이루어진 4개의 지리 수업을 관찰하였다. 수업 분석 내용은 (1) 수업의 조직, (2) 교사와 학생간에 이루어지는 대화의 이동 양식, (3) 수업 방법이다. 수업 관찰 이후에 해당 학교의 사회과 교사들과 면담을 통하여 비전공 교사가 지리를 가르칠 때 어려움과 해결 방법 등에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였다. 수업 분석은 미시 기술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연구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성원간 검토와 삼각구도화를 활용하였다. 지리 수업 관찰 결과 도출한 비전공 교사에 의한 지리 수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지리 전공 교사의 수업에 비하여 학습 주제의 전환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는 점이다. 지리를 전공한 교사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내용을 상호 연결시켜 전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을 드러낸 반면, 비전공 교사들은 지역을 정태적이고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암기하면 되는 사실로서 가르치고 있다. 둘째, 교사가 수업에서 행한 질문의 역할은 전공 교사와 비전공 교사간에 차이를 나타낸다. 지리 전공 교사의 질문은 본 수업의 내용을 이끌어 가는 기제로 작용한 반면, 비전공 교사에 의한 질문은 주로 학생들의 흥미를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지리 전공 교사와 비전공 교사 모두 교과서의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지만 설명 방식은 차이가 있다. 지리 교사는 비교와 대조의 방식을 이용하여 교과서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파악하고, 개념간 관계를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반면, 비전공 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읽고 용어나 내용을 쉽게 풀이해 주는 수준에서 설명한다. 넷째, 전공 교사는 교과서의 내용을 지도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반면 비전공 교사는 지도를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을 하더라도 지역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낮은 수준에서 활용한다.

비전공 교사는 지리를 가르칠 때 지리적 관점이 정립되지 못하여 교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지리학의 지식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여 지리 지식이나 내용을 짜임새있게 조직하여 가르치지 못하며, 가르칠 내용을 선별하거나 교재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하다. 그러나 그들은 비전공성으로 인한 수업의 문제는 교육과정의 편제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한다.